

이정후, 빅리그 3년 차 '진짜 실력' 시험대

데뷔 시즌은 부상으로 조기 마감...2025시즌엔 기복 겪어
우익수로 포지션 변경... "기복 없이 많은 경기 출전 목표"

'바람의 손자'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빅리그 3년 차를 맞는다. 지난 2년간 부상과 부진 속에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는 새 시즌 달라진 모습을 예고했다. 그의 2026시즌 목표는 기복 없는 활약, 그리고 더 많은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다. 새로운 포지션에서 새 시즌을 다시 시작하는 이정후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한다. 이정후는 2023년 12월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1300만 달러(약 1634억원)라는 대형 계약을 체결했다. 그를 향한 기대도 작지 않았다. 미국 현지 매체들도 이정후를 주목했다. 그리고 이정후는 2024년 3월 빅리그 데뷔전부터 안타와 타점을 동시에 신고하며 대형 루키의 탄생을 알리는 듯했다. 이정후는 데뷔 시즌 초반 1번과 3번 타자로 경기에 나서 꾸준히 안타를 신고하며 가능성을 드러냈다. 하지만 봄날은 오래가지 않았다. 5월9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파울 타구에 왼발을 맞은 그는 통증과 함께 3경기

를 연이어 결장하더니, 나흘 만에 나선 5월13일 신시내티 레즈 전에선 1회 수비 도중 펜스와 충돌하고 말았다. 왼쪽 어깨에 부상을 당한 이정후는 결국 수술대에 올랐고, 한 달 반 만에 데뷔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지난 2025시즌은 사실상 이정후의 빅리그 첫 시즌이었다. 수술 후 외부 일정을 배제한 채 재활에만 몰두했던 그는 절치부심하며 2년 차 시즌에 들어갔다. 그리고 2025시즌 초반, 이정후가 일으킨 돌풍은 말 그대로 매서웠다. 불꽃 가발을 쓴 채 이정후를 응원하는 '후리건즈(HOO LEE GANS)'가 탄생했으며, 한국 빅리거로서 유일하게 올스타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5월 중순 들어 시작된 타격 부진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결장도 잦아졌다. 6월 한 달 타율은 0.143까지 떨어졌다. 이후 타순 조정과 휴식을 병행하며 부진 탈출을 노린 이정후는 7월 타율 0.278을 치며 반등 조짐을 보였고, 8월에 타율 0.300을 작성하면서 부활을 알렸다. 9월에

는 월간 타율 0.315를 찍으며 다음 시즌을 향한 기대감을 밝혔다. 지난해 이정후의 성적은 150경기 출전에 타율 0.266(550타수 149안타) 8홈런 55타점 10도루 73득점에 OPS(출루율+장타율) 0.734였다. 그는 팀 내 규정타석을 채운 타자 중 타율 1위에 올랐고, 2005년 스텔라 이치로(당시 시애틀 매리너스·일본)가 작성한 MLB 아시아 타자 단일 시즌 최다 3루타 기록(12개)과도 어깨를 나란히 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는 몸도 마음도 새롭게 다잡았다. 새 시즌 대비 출전 전 그는 "비시즌 동안 재활하지 않고 훈련만 한 것 같아 너무 좋았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발전해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포지션도 달라졌다. 지난 두 시즌 동안 중견수로 뛰던 이정후는 올 시즌부터 우익수로 나설 전망이다. 수비 부담을 조금 덜어낸 만큼 타격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새 시즌 예고편도 깔끔하게 내보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지난 1월 21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국하며 인터뷰하고 있다. /뉴시스

2026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출전을 위해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 치른 4차례의 시범경기에서 이정후는 매 경기 안타를 생산했다. 우익수로서 호수비는 팀

이었다. 특히 지난달 26일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경기에선 3루타를 포함해 멀티히트를 터트리며 WBC는 물론 새 시즌을 향한 희망

까지 함께 밝혔다. 적응의 시간은 끝났다. 몸 상태도 좋다. 2026시즌은 이정후의 빅리그 여정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뉴시스

'메시 vs 야말' 맞대결도 중단... 중동 전운에 스포츠계도 '불똥'

카타르 개최 예정 유럽vs남미 축구선수권 우승국 대결 잠정 연기
중동 그랑프리 예정인 F1도 '비상'... AFC-FIBA 등도 일정 차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이은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중동 전역에 전운이 감돌면서 스포츠계에도 불똥이 튀었다. 이란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

르 등 인접국들로 전선이 확대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스포츠 행사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당장 오는 26일부터 카타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피날리시마'가 보류됐다. 유럽과 남미의 대륙선수권대회 우승국

이 맞붙는 이 대회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와 스페인의 라민 야말의 승부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안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카타르축구협회가 1일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 경주 대회인 포뮬러 원(F1)도 향후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다음 주 호주 멜버른에서 2026시즌 개막전이 예정된 가운데 4월 예정된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는 개최가 불투명하다. F1의 타이어 독점 공급사인 피렐리는 바레인에서 진행 중이던 타이어 테스트를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공항의 폐쇄로 스포츠 선수들의 이동에도 혼선이 생겼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랭킹 12위 인도의 푸살라 신두는 배드민턴 최고 권위 대회 전영오픈 참가를 위해 이동하던 중 두바이 공항에 발이 묶였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타입체조 동계올림

픽 3관왕인 일본의 스기영웅 니카이도 렌도 두바이 공항에 고립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스키플라이 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앞서 중동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와 챔피언스리그2(ACL2) 등 아시아클럽대항전 서아시아 경기 일정도 모두 연기됐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소속팀인 알나스르(사우디아라비아)와 알와슬(UAE)의 ACL2 8강 1차전도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AFC는 연기된 경기의 개최 시기를 추후 논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 월드컵 아시아 예선 역시 미뤄졌다. 아시아 예선 C조에는 이란과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도 포함됐고, D조는 레바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 이 경기들은 카타르 도하와 레바논 주 크마카엘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FIBA는 현지 악화한 정세 등을 이유로 모두 연기했다.

이란의 모든 스포츠 시설도 폐쇄됐다. 이란 당국이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에드 알리 하메네이를 기리기 위해 40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면서 이란 프로축구 리그 등 스포츠 리그가 취소됐다. 올 시즌부터 이란 프로축구 리그에 진출해 뛰고 있던 전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이기제(메스 라프산잔)도 대사관으로 피신한 뒤 귀국을 준비하고 있다. 올여름 예정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도 혼선을 빚고 있다. 이란 대표팀이 본선 조별리그를 모두 미국에서 치르는데, 이번 공습으로 월드컵 불참 의사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메디 타즈 이란축구협회장은 "미국의 공격으로 우리가 월드컵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렵게 됐다. 최종 결정은 스포츠 수비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FIFA는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I | FORENA

★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의곡천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흥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흥 GS건설 | (주)인한/건설 | HDC연산사업개발

'무적' 안세영, 한국 단식 최초 전영오픈 새 역사 쓴다

女단식 세계 1위... 올해 참가 3개 대회 모두 우승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다시 정상에 향해 뛴다. 배드민턴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오픈 2연패에 도전한다. 안세영은 3일부터 8일까지 영국 버밍엄에서 열리는 2026 전영오픈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 단식에 출전한다. 지난달 아시아단체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여자 대표팀의 첫 우승을 이끈 안세영은 약 3주 동안 휴식과 훈련을 병행하며 전영오픈 출격 준비를 마쳤다. 1899년 시작해 올해로 116회째를 맞은 전영오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배드민턴 대회로, 오랜 역사만큼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총상금은 145만 달러(약 21억원)다. 안세영은 2023년 전영오픈에서 우승하며 1996년 방수현 이후 27년 만에 이 대회 정상에 오른 한국 단식 선수가 됐고, 2024년 준결승에서 탈락했으나 지난해 전영오픈 통산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품어 안았다. 이제 안세영은 통산 세 번째이자 한국 단식 선수 최초 전영오픈 2연패에 도전장을 내민다. 과거 박주봉, 김문수, 정명희, 길영아 등 전설적인 선수들이 이 대회 복식에서 연패를 이뤘으나 한국 단식 선수가 2년 연속 제패한 적은 없었다. 지난해 단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거

록인 11승과 최고 승률 94.8%(73승 4패)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낸 안세영은 올해도 세계 1위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말레이시아오픈과 인도오픈에 이어 지난달 아시아단체선수권대회에서도 우승을 맛보며 올해 출전한 3개 대회에서 모두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지난해까지 포함하면 무려 7개 대회

연속 우승에 32연승 행진을 벌이고 있다. 부상 등 변수만 없다면 이번 전영오픈 우승도 안세영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안세영은 세계 2위 왕즈이(중국)와 최근 10차례 맞대결에서 전승을 거뒀고, 세계 3위 천위페이(중국)와 지난 시즌 7차례 맞붙어 5승 2패로 우위를 점했다. /뉴시스